

2019년 9월 23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구제역방역과 과 장 김대균(044-201-2531), 서기관 장순석(2537) / 제공일: 9월 23일(총 1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경기도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 1개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확진

- 농림축산식품부(이하 “농식품부”)는 9월 23일 중점관리지역내 소재한 경기도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(1,800여두 사육)의 의심축 신고 건에 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한 결과, 9월 23일 오후 7시반경 아프리카 돼지열병(이하 “ASF”)으로 확진 되었다고 밝혔다.

* 국내 ASF 확진 : 총 3건(금일 1, 既 발생 2)

- 1) 9.16일 신고 - 경기도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(9.17일 확진)
- 2) 9.17일 신고 - 경기도 연천군 소재 돼지농장(9.18일 확진)
- 3) 9.23일 신고 - 경기도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(9.23일 확진)

-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의 의심축 신고접수 직후부터 현장에 초동 방역팀을 긴급 투입하여 사람, 가축 및 차량에 대한 이동통제,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를 취해 왔으며,
 - 금번 ASF로 확진됨에 따라 살처분 조치를 즉시 실시하고, 발생 원인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.
-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서는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, 면밀한 임상관찰을 통해 의심축이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※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번호 : (국번없이) 1588-9060 / 4060